

## 주최자 인사



이토 이사오 (伊藤 勲)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벨재단의 이사장 이토입니다. 인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9회 「한일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우선, 올해 3월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대재해인 동일본 대지진에, 세계각국으로부터의 지원중, 특히 한국의 긴급구조대 파견이나, 많은 의연금을 모금해서 보내 주신 것, 또 안부 메시지등의 따뜻한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사회공헌재단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한사람의 일본 국민으로서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예를 올립니다.

유니벨재단은, 불교교단 종교법인 신노엔(真如苑)을 창시한 故 이토 신조 교주의 유지에 따라,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설립, 출발하였습니다. 이래, 풍요롭고 활력있는 장수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국제적 조사 연구의 조성을 비롯해, 국제간의 교류, 연수등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갈한 “마음”, 즉 불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중요한 깨달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목표로 하는 본재단에서는,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오늘의 「한일 마음의 교류 프로그램」과 같은, 많은 프로그램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은 「가족지원과 소셜워크 -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기능의 강화-」를 테마로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출생률 감소/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인구감소의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이런중에 공익법인제도의 개혁이 실시되어, 본재단에서는 새롭게 「고령화문제를 글로벌적인 시점에서 접근하고 조성하여 인재의 육성, 국제교류등의 사업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 및 인구감소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고령자복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감소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복지」로 확대해 가기 위한 인정신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회·경제상황의 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대상을 넓히고 보다 알찬 활동을 할수 있게 해주신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어린이에서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육성이 시급합니다.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은 물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그 행동, 또한 가족, 친구, 선배, 은사등 자신의 주변사람으로부터 받는 진심, 진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배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지역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도와가는 사회기능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그램은 심포지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배우는 대학원생과 젊은 소셜워커가,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한일 마음의 교류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 서울에, 일본에서 7명이나 파견했습니다.

「한일 마음의 교류 프로그램」은 아직 작은 시도입니다만, 앞으로도 개최를 거듭하여 문화, 습관, 언어, 인종, 종교,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우호와 친선의 다리를 놓아, 세계의 융화를 위해 구축해 가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우수한 지도자가 많이 육성되기를 마음으로부터 염원하며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主催者ごあいさつ



伊藤 勲 (いとう いさお)

財団法人 ユニバーサル財団 理事長

ヨロブン アニョン ハシムニカ

ユニバーサル財団の伊藤でございます。一言ご挨拶を申し上げます。

本日は大好きな韓国に来ることが出来まして大変光栄に思っております。

第9回「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にご参会くださいました皆様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まずは、本年3月11日、日本で発生しました未曾有の大災害・東日本大震災では、世界各国からお見舞いや支援をいただく中、特に韓国からは緊急救助隊の派遣や、多額の災害支援募金、またお見舞いのメッセージなど温かなお心配りをたまわりましたこと、社会貢献財団を預かります者として、また一日本国民として心より感謝、御礼を申し上げます。

ユニバーサル財団は、仏教教団宗教法人真如苑の開祖、故伊藤真乗教主の遺志により、直面する高齢化社会に向けて設立、出発いたしました。以来、豊かで活力ある長寿社会の構築を目指し、国際的調査研究への助成をはじめ、国際間での交流、研修などを実施して、大きな成果をあげてまいりました。私たちは、これらの活動を展開するにあたって、人の“こころ”を大切にすることをモットーに進めております。仏教では、誰もが持つ浄らかな“こころ”、すなわち仏性というものを互いに認め合い、尊重することの大事を解いております。「人類の至福と世界平和」を目標とする当財団では、一人ひとりの“こころ”を大切にすべく、本日の「韓日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のように、多くのプログラムに“こころ”の言葉を入れ、活動に生かしております。

本年のシンポジウムは「家族支援とソーシャルワーク ―家族のための地域社会機能の強化―」をテーマといたしました。

日本では、世界に先がけて少子高齢化が急速に進み、人口減少社会の到来が明らかになってまいりました。こうした中で公益法人制度の改革が実施され、当財団では、新たに「高齢化問題をグローバルな視点から捉え、助成、人材の育成、国際交流等の事業を行うことにより、少子高齢社会および人口減少社会における社会福祉の増進に寄与する

ことを目的とする」と掲げ、今までの「高齢者福祉」から「少子高齢社会、人口減少社会における社会福祉」へと広げていくべく認定申請を進めております。

社会・経済状況の大きな変化に伴って、新たな社会的課題へ対象を広げ、より充実した活動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とは、大変ありがたいことと思っております。

今日、子どもから高齢者まで、地域社会が抱える様々な問題に対して使命感を持って挑み、積極的に行動するには、優秀な人材の育成が急務となっております。

人を育てていくということは、知識や技術の修得もさることながら、他人を思いやる“こころ”やその行い、また、家族、友人、先輩、恩師など自分の周囲の人からいただくまごころ、まことを、尊く感謝で受けとめる“こころ”を培っていくことが大切です。さらに、その“こころ”で、地域の方々が一つになって支え合っていく社会機能を作るからこそ、問題解決への重要な道であろうと考えます。

こうした観点をふまえ、当プログラムは、シンポジウムだけでなく社会福祉を学ぶ大学院生と若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が、共に学び、交流する「韓日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も併行して進めております。本年は、ここソウルに、日本から7名を派遣いたしました。

「韓日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は、まだ小さな取り組みですが、今後も開催の営みを重ね、文化、習慣、言語、人種、宗教、国境を越え、あらゆる人と人との関係に友愛の橋を架けて、融和世界を構築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このプログラムを通して、世界に羽ばたく優秀な指導者が多く育まれることを心より念願いたしまして、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本日はまこと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カムサ ハムニダ。